

장난감 하나 없는 저소득 가정 절반

불교계, 저소득 가정 위한 방과 후 보육 적극 나서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 자녀 대부분이 아동 도서와 장난감이 없는 열악한 양육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아동 복지 참여를 통한 부처님 자비 실천을 위해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태환)는 2009년 38개 시·군·구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층 아동이 밀집한 취약지역에서 부모 1만381명을 대상으로 저소득 아동가구 생활실태 및 서비스 욕구조사 실시한 결과를 4월 29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생각보다 심각했다. 아동용 서적이 한 권도 없는 가정은 29.3%, 장난감이 하나도 없는 가정은 55.8%에 이르고, 영·유아용 가구가 없다는 가정은 78.2%, 자녀용 책상과 의자가 없다

는 가정은 49.7%에 달했다. 저소득 가정은 기본적인 양육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부모의 25%가 자녀양육 관련 조언이나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부모 중 72.9%는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모는 주변 아동들에 대한 문제점으로 '방과 후 방치'를 37.5%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문화 활동 부족(28.4%), 성적 부진(10%), 정서적 건강(8.2%), 신체적 건강(4.7%) 순으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치에 대한 대안으로 공부방 등 방과 후 보육시설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개신교에서는 곳곳의 교회에 개방해 공부방으로 운영하면서 선교의 목적까지 달성해 왔다. 불교계는 동산불교대학 등이 청

소년공부방을 운영 중이지만 이웃 종교에 비해 시설의 양적, 교육의 질적으로 여전히 부족하다. 동산불교대학이 위탁운영 중인 석관정소년공부방(원장 정진화, 02-941-1242)은 아동과 청소년 모두 아우르는 시설이다. 아동의 방과 후 교실과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교실은 이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이곳은 독서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1시간에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으로 전액 쓰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24곳의 저소득·다문화 가정에 매달 5-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불자 변호사와 결연을 맺은 70가정의 아이들에게도 매달 후원금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정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총무원장은) 5월 1~2일 서울 조계사와 김천 직지사에서 난치병어린이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병행했다. 조계종은 난치병으로 장기간 투

병과 병에 고통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처님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자 2001년부터 3000배 철야정진을 진행해, 300여 아동에게 2억 2000여 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격려사를 통해 "증생구제의 대원을 세웠던 법장 보살처럼,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의 발원이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회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조계사에서는 1000여 사부대중이 3000배 기도정진에 동참해 한마음으로 난치병어린이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박선주 기자

“절에 가면 부처님이 웃고 있어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제3회 불교아동 미술큰잔치



불교아동미술잔치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자신이 그린 부처님 그림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총무원장은)이 5월 4일 서울 조계사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제3회 불교아동 미술큰잔치'를 개최했다. 낙산·신일·반야·해나라·정릉 1동 어린이집 등 불교계 영유아

보육시설의 원생들이 참여한 제3회 불교아동미술큰잔치는 가족·부처님·스님·절 등을 소재로 그림 대회가 실시됐다. '맑고 밝고 향기로운 우리들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불교아동

미술큰잔치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언젠가 부모님과 찾았던 사찰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렸다. 정릉 1동 어린이집 조윤찬(7세) 어린이는 "절에 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라며 밝게 웃는 모습의

부처님 그림을 들어 보였다. 양천구 신월동 해나라 어린이집 이현준(7세) 어린이는 "절에 가면 엄마 따라서 절을 해요. 절에도 놀이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며 그림 소개대신 절에 대한 단상을 말했다. 당일 오후 2시에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상은 정릉1동 어린이집 이민정(7세)의 '내 맘 속 부처님'이 선정됐다. 단체상은 신일어린이집과 해나라 어린이집이 수상했다.

시상식에서는 대상(총무원장 상) 1명, 맑음상(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상) 5명, 밝음상(조계사 주지 상) 10명, 향기로운상(협의회장 상) 10명, 단체상 2기권, 입선 75명 등 총 103명의 원생들에게 상장과 메달, 상품이 전달됐다.

신일 어린이집 강인영 교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절이나 유적지는 탐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도심 속 사찰을 관람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미래불교를 선도할 아이들이 전통 사찰에서 문화활동을 하면서 순수한 심성을 계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천진불의 부처님 향한 음성공양

불레협, 어린이 연꽃 노래잔치·찬불 율동제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어린이 불자들의 율동과 노래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도경)는 5월 2일 '제22회 전국 어린이 연꽃 노래잔치'와 '제5회 어린이 찬불 율동제'를 개최했다.

전국 어린이 연꽃 노래잔치에는 율동 부문과 독창·중창·합창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독창에 20명의 어린이가, 중창, 합창에는 육천암, 회룡사, 봉은사 어린이회 등 12개 단체가 참가해 경연을 벌였다. 이날 대상은 원각사 황혜선 어린이가 수행했다. 최우수상은 독창 부문 정룡사 송영우 어린이, 회룡사 신소영·

전광일 어린이가, 합창부문은 회룡사·봉은사 어린이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도공로상, 기쁨상, 장려상 등 총 6개 부분에서 20팀의 어린이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해 모두에게 사

랑방길 바란다"며 "불교발전과 어린이 포교를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잔치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합창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봉은사 어린이회가 불심가득한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다.

“수빈이와 함께 내일을 꿈꾸고 싶어요”

5월의 환우 김미숙씨, 딸 수빈이마저 뇌병변 장애

생명나눔 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5월의 환우에 김미숙씨(여·31세)를 선정하고 한 달 간 후원금을 모금한다.

김미숙씨는 2009년부터 척추 등 근골격의 통증과 감각이상을 유발하는 부정렬 증후군 등 여러 병을 앓고 있다. 의사는 입원과 재활 치료를 권했지만, 김씨는 장기간의 입원과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김씨의 유일한 기쁨인 일곱살 딸 수빈이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다. 수빈이는 2009년에는 언어 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 언어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치료



여러 병마에 시달리고 있어도 두 모녀는 희망으로 견뎌가고 있다.

비 부담으로 치료를 거의 포기한 상태이다. 김씨는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만, 통증이 심해 일을 할 수 없다. 오히

려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해 병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해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못난 엄마일 뿐이다"며 울먹였다.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모든 이들의 꿈이다. 김미숙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남편은 잦은 외도와 폭력을 일삼았고, 개인중독으로 인해 일체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결국 2년 전 이혼했다.

모녀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희망이 찾아오도록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박선주 기자

평화의 집
다카자네 야스노리
특별강연

합천 평화의 집(소장 해진)은 한일 합방 100주년과 원폭투하 65주년을 맞아 다카자네 야스노리(高實康稔·나가사키평화자료관 이사장, 나가사키대학 명예교수) 관장을 초청해 5월 6일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서 원폭 기억과 평화자료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에서 다카자네씨는 일본 국민으로서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하는 한편, △원폭 투하 이후의 역사 재평가 △원폭문제 해결과 합천의 과제와 역할 △평화자료관의 역할 등에 대해 강연했다.

(070)4116-0301 박선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4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첫송, 상단예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 (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5월 26일까지 접수

◆ 개강일시 : 2010년 5월 27일 매주 (목) 오후 5시 ~ 8시 (3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도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